

江南도시에서 사교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글쓰기 특징*
－ 袁枚의 작품을 중심으로

홍혜진**

<目 次>	
1. 서론	
2. 본론	
1) 개인의 진정한 글쓰기 강조	
2) 생활소재를 통한 정서적 친밀감 형성	
3) 실용지식과 이야기 제공	
4) 장르융합을 통한 관계망 확대	
3. 결론	

1. 서론

1) 연구 목적

청조는 18세기에 ‘盛淸’으로 지칭될 만큼 괄목할 만한 부흥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 직접적인 수혜지는 바로 강남 도시였다. 자본의 축적에 따른 권위가 새롭게 창출되면서 전통적인 신분구조가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도시는 상업적 활력을 기반으로 예술, 문화, 학문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였는데 원림, 기방, 詩會, 서원 등의 사교공간이 중심이 되었다. 이곳에 모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은 춤과 노래를 즐기며 수평적 연대 속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교

*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21103).
** 단국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환하였다. 관심사에 따라 학술, 잡학, 음악, 그림, 서예 등의 예술적 취향에서부터 골동수집, 음식, 여행, 축제, 오락 등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더 나아가 작품을 짓고 문집을 엮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지식과 사유를 성장시키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계몽사상의 산실 역시 살롱 같은 사교공간이었다. 하버마스는 이를 가리켜 '새로운 문학 공간을 고무하는 최초의 학교'¹⁾라고 하였다. 시인, 성직자, 철학자, 귀족, 정치인, 예술가, 상층 부르주아, 여성 등이 이곳에 모여 활발한 토론을 벌이며 새로운 정보를 전파시켰다.²⁾ 이들은 비교적 평등한 관계에서 품위 있는 교양, 우아한 취미, 풍부한 지식 등에 관한 담론을 펼쳤고 점차 새로운 세상에 대한 공론까지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교공간은 단순한 만남과 놀이의 장소를 넘어서서 담론, 비판, 교류, 교육의 장소이자 계몽의 장소였다. 여기에 시민계급의 참여가 높아지고 새로운 사상이 유입되면서 사회를 변화시킬 역량까지도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시대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청대 중엽의 袁枚(1716~1797)가 사임이후 蘇州, 杭州, 揚州의 사교공간 및 자신의 隨園을 중심으로 사교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문필활동을 벌인 것에 주목하고 그의 작품에서 이를 형성하는데 유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원매가 자신을 둘러싼 개인 및 그들과의 관계를 중시한 것은 작품에 기재된 다양한 인명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예를 들어 兩江總督 尹繼善, 揚州鹽運使 盧見曾의 정치인에서부터 염상 江春, 儒商 程晉芳, 고증학자 惠棟, 錢大昕, 顏李學派 程廷祚, 桐城派 姚鼐, 揚州八怪의 李方膺, 金農, 鄭燮, 博學鴻詞科와 進士동기생, 여제자 席佩蘭, 金逸, 嚴蕊珠, 남제자 吳泰來, 嚴長明, 周發春, 孫原湘, 洪亮吉, 수험생 및 『수원시화』의 수많은 인명들은 후원자, 정치인, 문학동호인, 동료, 제자 및 넓게는 광범위한 독자들이었다. 이는 또한 지식, 학습, 교양, 소득, 문화 등의 수준이 일정치 않았음을 의미하였다.

1) 서정복, 『살롱문화』, 살림, 2003, 4쪽.

2) 부르크하르트는 교양을 전제로 하는 신분의 평등, 세련된 생활, 순화된 언어, 여성의 지위 향상 등을 사교생활의 조건이라 하였다. 이광주, 『담론의 탄생』, 한길사, 2015, 41쪽.

이들과 주고받은 작품들은 시문집, 『수원시화』, 『續同人集』 등에 주로 실려 있다.³⁾ 그중 『續同人集』은 원매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을 14가지로 따로 분류해 모아 놓은 것인데 사교공간에서 다뤘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중 過訪類는 수원을 방문한 후 지어진 시들로 수원의 모습, 원매를 만난 감회,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宴集類는 연회에서 지은 시로 향시, 청명절, 중양절, 또는 매화, 모란, 작약, 부용 등의 꽃이 필 때를 배경으로 하였다. 특히 수원에 등을 켜고 벌인 연회는 放燈類로 따로 구분하였다. 投贈類는 여행 중에 만난 이들이 써 준 작품이다. 慶賀類는 모친의 팔순, 원매의 육순, 칠순 생일 및 아들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작품이고 반면 告存類와 生挽類는 원매가 말년에 자신의 삶이 다해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쓴 시에 사람들이 화답한 것이다. 答謝類는 원매가 써준 서문, 시, 전기문, 묘지문이나 『수원시화』에 시를 수록해 준 것, 문집 교정 및 각종 선물 예를 들면 白魚, 돼지발, 침향, 쌀, 가죽, 부채, 버루, 떡 등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寄懷類, 和韻類, 題圖類, 送行留別類가 있고 여자들이 보낸 것은 閨秀類에 문장은 文類를 따로 두었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수원은 이미 남경의 명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며 심지어 숙박까지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타지에서 만나는 이방인마저도 원매를 만나면 예의를 갖춰 대할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원매는 수요가 많은 서문, 전기문, 묘지문 및 좋은 시를 적구하여 시화에 실어주거나 교정하고 간행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또한 시험, 계절, 축제, 여행 등 다양한 사건은 물론 자신의 절명시까지도 창화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유연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교유하였다.

원매가 사교공간에서 사람들과 불연속 혹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며 중추적 인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단연 글쓰기였다. 내용이나 형식은 각기 다

3) “내가 명사들이 모이는 곳에 있는 지 60년이 되니 사방에서 보낸 시가 만수가 넘어 대부분 집 벽에 붙이고 ‘시세계’ 세 자를 지어 그것을 나타내었다. 몇 년이 되지 않아 거의 모두 벗겨지고 종이 먹어 그로 인해 스스로 후회하였다...시 가운데 뛰어난 것을 판각하여 보존하고...이미 시집과 『수원시화』에 덧붙인 것은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 (余在名場垂六十年, 四方投贈之詩不下萬首, 多糊屋壁, 題詩世界三字以顏之, 不數年盡皆剝蝕, 因之自悔...乃選其詩之最佳者梓而存之...其已附集中及『詩話』者, 俱不錄)” (원매 저, 왕영지 주편, 『續同人集』, 『續同人集』, 『원매전집6』, 江蘇古籍出版社, 1993, 317쪽)

른 수준의 학식, 출신, 문화적 소양 및 관심사를 아우르고 참여자들의 개별성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동시에 연대할 수 있는 포용적 지향점까지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원매는 상층신사로서 겸비하였던 학문, 철학, 예술에 대한 이해와 시문 창작 능력을 바탕으로 사교공간의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였다. 개인의 감성 표현방식부터 사회문화적 병폐에 대한 논의, 고증학, 인생철학, 경제관, 개인적 취향과 욕구, 오락문화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게 되었는데 이를 공유하는 사이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원매를 수장으로 한 문인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개인의 독창성에 주목한 원매의 성립설은 이러한 배경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대 이후 원매와 그의 시학은 시대를 앞선 진보적 세계관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매의 작품 중에 사교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징을 추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연구 방법

원매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시론 편중에서 벗어나 개별 텍스트에 대한 연구로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애, 사상, 시론, 性靈派, 詩歌, 古文, 小品文, 『隨園詩話』, 『子不語』, 『隨園食單』, 교유 관계, 조선과 일본의 수용, 사회문화적 특징 연구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⁴⁾ 그러나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王標의 『城市知識分子的社會形態』를 들 수 있다. 저자는 당시 소주, 항주, 남경의 도시적 특징에 대해 언급하고 각 지역에서 벌인 원매의 활동과 주변인에 대해 밀도 있게 분석하여 청대 도시연구사로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원매가 이러한 도시를 배경으로 벌인 글쓰기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소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청대가 “泛情과 ‘泛文’의 특징이 있음을 지적하고 원매의 작품에도 이러한 성향이 높음을 말하였다.⁵⁾ 그리고 다수의 인명이 실린 『續同人集』, 『隨園詩話』, 『子不語』에 국한

4) 『袁枚研究學術檔案』에는 1900~2012년간의 연구 성과들이 모두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다.

5)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의 ‘담론권력’과 뫼에르브르디외(Pierre

하여 각 도시와 그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 원매의 작품도 다른 성향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매가 도시의 요구에 따라 문필활동을 벌였던 일면도 있었겠으나 그가 스스로 문단의 병폐를 해결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한 점, 더 주체적으로 글쓰기에 임하길 바라며 많은 사람들의 성장에 일조하였던 점, 스스로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글쓰기를 실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략하고 유기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매의 작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도시의 문인으로 그들과 소통하며 연대를 이루기 위해 강조하였던 글쓰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嚴迪昌의 주장도 눈여겨볼 만하다. 원매가 상층신사의 신분이나 전업 작가로서 적극적으로 賣文에 나섰음을 지적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성정과 개성을 강조하였는데 그 이유가 시민의식의 성장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있었다고 보았다.⁶⁾ 다만 개론서이다 보니 주요 특징만 언급할 뿐 작품과 연계된 구체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본고는 원매가 자신을 중심으로 사교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었던 요인을 그의 작품을 통해 규명하려는 것이다. 또한 왕표의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원매의 작품⁷⁾ 가운데 시문집 『小倉山房詩文集』 역시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이며 이외에 『續同人集』, 『隨園詩話』, 『子不語』, 『隨園隨筆』, 『小倉山房尺牘』 등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원매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사교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데 필요로 하였던 것을 크게는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개인, 생활, 교양지식자본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

Bourdieu, 1930~2002)의 '아비투스'의 개념을 근거로 남경, 소주, 항주의 도시 특징에 따라 원매가 벌였던 문예활동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王標, 『城市知識分子的社會形態』, 上海三聯書店, 2008, 224-249쪽.

6) 嚴迪昌, 『清詩史』, 浙江古籍, 2002, 731-747쪽.

7) 원매는 작품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방대하다. 시문집인 『小倉山房詩集』 37권, 『小倉山房詩集補遺』 2권, 『小倉山房文集』 35권, 『小倉山房外集』 8권, 시화집 『隨園詩話』 16권, 『隨園詩話補遺』 10권, 역대 서적을 고증한 『隨園隨筆』 28권, 문언 지괴소설 『子不語』 24권, 『續子不語』 10권, 팔고문 『袁太史稿』, 척독 『小倉山房尺牘』 10권, 『牘外餘言』, 음식서 『隨園食單』, 『續同人集』, 『八十壽言』 6권 등이 있다.

다. 원매가 사교공간의 참여자들을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인식하였던 점 그리고 원매의 글쓰기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이들과 친화적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원매가 상충신사로서 공급해줄 수 있었던 교육적, 학문적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과 밀접한 실용적인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오락, 취미 또한 중요한 사교문화의 일환이었으므로 이런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외적요인을 강화한 부분으로 원매가 익숙한 혹은 낯선 사람들을 관계망 안으로 포섭하고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 어떤 양식을 사용하였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전체 내용을 개인의 진정한 글쓰기 추구, 생활소재를 통한 정서적 친밀감 형성, 실용지식과 이야기 제공, 장르융합을 통한 관계망 확대 등으로 나눠 살펴보겠다. 이러한 방법론은 사회문화적 변화의 일환으로 텍스트를 접근하려는 시도로써 시론중심에서 벗어나 전체 텍스트를 조망하여 청대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1) 개인의 진정한 글쓰기 추구

원매는 사교공간에서 구성원의 시가창작을 독려하기 위해 노력하며 시의 도덕적, 사회적 기능을 앞세우기보다 성정의 표현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詩緣情'이 아닌 '詩言志'의 정통 유가시학의 개념을 내세우면서도 그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와 감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시켰다.⁸⁾ 또한 『시경』을 근거로 삼고 있긴 하나 정통성의 함의보다는 다양한 창작자의 참여를 강조하고⁹⁾ 개인의 독특한 서정을 기대하여 학식이 부족해도 이백, 두보를 뛰어넘는 작품성이 있을

8) 줄고, 「원매의 시가창작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제52, 2018, 5쪽.

9)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라 수고로운 자나 그리움에 빠진 여인도 모두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시경』은 배움을 다 한 자가 지은 것이 아니다. (詩言志, 勞人思婦, 都可以言, 『三百篇』不盡學者作也)” (『소창산방문집』 권19, 『원매전집2』, 317쪽)

수 있다고 말하였다.

“아낙네와 촌부는 별로 배우지 못했지만 우연찮게 지은 한 두 구는 이
백, 두보가 다시 살아나도 반드시 고개를 숙일 것이다.”¹⁰⁾

오히려 다음과 같이 학식의 부작용에 대해 말하기도 하였다.

“시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천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나는 사람들이 천성으로 시를 지은 것은 없고 후천적 노력으로 시를 지은 것을 자주 보았는데 문호로 시를 판단하고 서적으로 시를 뽑내며 첩운, 차운, 험운을 시에 늘어놓아서 詩道가 날로 사라지게 되었다.”¹¹⁾

원매는 학식으로 파벌주의를 조성하고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느라 첩운, 차운, 험운 등의 압운을 써서 결국엔 詩道를 망하게 하였다고 비판하며 학식보다 중요한 것은 ‘천성(天)’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위적 요인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고유한 성정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진정한 작품을 지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이야기는 무엇이든 시가의 제재가 될 수 있고 그 독특한 경험 세계로부터 풍부한 내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학식의 배제와 천성의 강조는 시가창작의 문턱을 낮춰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시경』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역대 유명시인과 경전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경계하고 청대인의 사유세계가 존중되어야함을 말하였다.

“고인은 모두 뛰어나고 지금 사람은 모두 서툰 것이 아닙니다. 『시경』에는 뛰어나지 않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 꽤 있습니다.”¹²⁾

10) “有婦人女子村氓淺學，偶有一二句，雖李杜復生，必爲低首者。”(『수원시화』 권3-50, 『원매전집3』, 84-85쪽)

11) “詩不成于人，而成于其人之天...予往往見人之先天無詩，而人之後天有詩，于是以門戶判詩，以書籍炫詩，以雙韻、疊韻、險韻敷衍其詩，而詩道日亡。”(『何南園詩序』, 『소창산방문집』 권28, 위의 책, 494쪽)

12) “未必古人皆工，今人皆拙，卽『三百篇』中，頗有未工不必學者。”(『答沈大宗伯論詩書』, 『소창산방문집』 권17, 283쪽)

원매는 고인을 의식하지 말고 현재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역대 유명 작가를 전범으로 삼아 학습하고 추앙하는 태도의 필요성을 일정부분 인정하면서도 실제 창작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원매는 시든 문장이든 간에 창작할 때에는 고인을 잊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¹³⁾ 고인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일 뿐이지 결국 글쓰기의 주체는 개인 당사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품과 작품 간의 등배 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치적, 도덕적으로 훌륭한 이들이라 하여 반드시 그런류의 작품을 기대할 필요는 없음을 말하였다. 다음의 문장은 왕안석의 주장과 그 동조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장언공은 염조은의 시가 화려한 단장에 예쁜 옷을 입은 격이라 풍아의 죄인이 됨을 면치 못한다고 하였다. 왕안석이 이로 인해 『자설』을 지어 ‘시는寺에서 쓰는 말이다.寺는 구경이 머무는 곳이어서 예법에 맞는 말이 아니면 쓸 수 없었으므로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근래 어떤 태사가 이 말을 각별히 지키며 ‘시로써 인품을 살필 수 있다.’고 자주 말하였다. 내가 장난삼아 한 연을 낭송하며 ‘[슬픈 쟁소리 속 두 줄의 기러기발, 약지의 온가락지.]는 누가 지은 것이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태사가 경시하는 뜻으로 말하길 ‘한악, 온정균, 이하에 불과할 따름이겠지요.’라고 하였다. 내가 웃으며 ‘이 시는 송나라 사대 황제를 함께 보낸 원로 文彦博의 시입니다.’라고 하니 태사가 크게 놀랐다.”¹⁴⁾

문언박¹⁵⁾은 송대의 중신으로 큰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다. 그런 그에게도 풍아 지도와 거리가 먼 기묘한 작품들이 있었던 것이다. 원매는 이를 예로 들어 인품이

13) “평소엔 고인이 있어야 학력이 깊어지나, 글을 쓸 때는 고인이 없어야 정신이 비로소 나타난다. (平居有古人, 而學力方深, 落筆無古人, 而精神始出)” (『수원시화』 권10-61, 339쪽)

14) “張燕公稱閭朝隱詩, 炫裝倩服, 不免爲風雅罪人. 王荊公因之作『字說』云, ‘詩者, 寺言也. 寺爲九卿所居, 非禮法之言不入, 故曰思無邪.’ 近有某太史恪守其說, 動云‘詩可以觀人品.’ 余戲誦一聯云, ‘哀箏兩行雁, 約指一勾銀.’ 當是何人之作.’ 太史意薄之曰, ‘不過冬郎、溫、李耳!’ 余笑曰, ‘此宋四朝元老文潞公詩也.’ 太史大駭.” (『수원시화』 권2-7, 34쪽)

15) 文彦博(1006~1097): 자는 寬夫이고 시호는 忠烈이다. 汾州 介休 사람이다. 天聖 5년(1027)에 진사에 급제하고, 殿中侍御史가 되었다. 神宗 때 王安石의 市易法에 반대했다가 좌천되었다가 哲宗 때 平章軍國重事가 되었다. 仁宗, 英宗, 神宗, 哲宗 동안에 걸쳐 재상을 지냈던 중신이다. (출처: <https://www.baidu.com>)

반드시 작품에 반영될 필요는 없음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시가 창작은 솔직하게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러한 일례로 남녀의 사랑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심덕잠이 『國朝詩別裁集』에서 향염시를 제외시킨 태도를 비판했던 것도¹⁶⁾ 이런 까닭 때문이었다.

같은 선상에서 생계에 대해 고민하는 문제도 중요시 여겼다. 다음 시에서 원매는 자공과 원현의 생활방식을 대조하였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 가운데 가장 부유하였고 반면 원현은 그 반대의 처지였다.

『遺興』其三(권15)

貨殖子貢富,	장사를 해서 자공은 부유해졌고,
瓮牖原憲貧.	항아리 창문이 있었던 원현은 가난했네.
富乃勞其力,	부귀는 힘을 들여 일한 것이고,
貧則苦其身.	가난하면 그 몸을 고달프게 하네.
治生貴有道,	삶을 꾸리는데 법도가 있음이 귀하고,
行樂貴及辰.	행락은 때를 맞추는 게 중요하네.
自活苟無才,	스스로 살아감에 진실로 재주가 없다면,
何以活生民.	어찌 백성들을 살아가게 할 수 있겠는가!

유가적 입장에서 원현은 안빈낙도를 실천하는 이상적 군자상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원매는 이러한 유가의 인간상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였다. 국가 경영에 있어 '도'의 역할보다 실질적인 경제운영능력이 중요하며 개인 역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국가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유가적 인간상이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와 매우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원매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적극 사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사례를 보였다. 나의 외모, 일상, 주변의 물건, 집, 정원, 가족, 친구, 제자, 희로애락,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취미, 여행, 지식, 놀이, 낮잠, 권태로움, 독서, 늙음 등에 대해 섬세하게 접근하였다. 이는 일종의 자기에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6) 「再興沈大宗伯書」, 『소창산방문집』 권17, 285-286쪽.

『子才子歌示莊念農』(권15)

一住一十有一年, 蕭然忘故鄉.	한 번 머뭇에 11년, 쓸쓸히 고향도 잊었다.
不嗜音, 不舉觴,	음악을 싫어하고, 술잔을 들지 않으며
不覽佛書, 不求仙方,	불서를 안 읽고, 도가의 처방도 구하지 않았다.
不知『青烏經』幾卷,	『青烏經』 ¹⁷⁾ 이 몇 권인지 모르고
不知樗蒲齒幾行.	노름 주사위의 이가 몇 줄인지 모른다.
此外風花水竹無不好,	이밖에 바람, 꽃, 물, 대는 좋아하지 않은 것
	이 없고
搜羅鷄碑雀錄盈東箱.	골동, 책을 모아놓은 것이 동쪽 행랑에 가득
	하다.
牽鄂君衣, 聘邯鄲倡,	미남의 옷을 끌어당기고, 한단의 기생을 불러들이니
長劍陸離, 古玉丁當.	긴 검은 빛나고 오래된 옥은 딸랑딸랑.
藏書三萬卷, 卷卷加丹黃.	장서 삼만 권, 책마다 표점을 달았다.
栽花一千枝, 枝枝有色香.	꽃 천 가지를 심어, 가지마다 색과 향이 있었다.
『六經』雖讀不全信,	육경은 비록 읽었지만 전적으로 믿지 않아
勘斷姬孔追微茫.	周公과 孔子를 따져서 꿰고 심오함을 추구하
	였다.
...	

원매는 남과 다른 자신만의 호불호를 드러내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그는 문인 생활의 상징적 기호였던 음악, 음주를 거부하였다. 또한 은자적 삶이나 속세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불서나 도가에 의탁하지도 않았으며 풍수지리나 노름에도 관심이 없었다. 반면 바람, 꽃, 물, 대나무를 좋아하고 골동품과 책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으며 미남과 여인을 좋아하고 독서를 하며 교감을 일삼았지만 『六經』이나 주공, 공자를 맹신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처럼 나답게 살고자 하였던 원매는 시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대단하였다.

『遣興二十四首』其六(권33)

獨來獨往一枝藤,	홀로 왔다갔다 하는 등나무 가지,
上下千年力不勝.	천년은 되어 감당하지 못할 듯.

17) 『青烏經』: 『青烏子』 또는 『葬經』이라고 한다. 漢代 青烏子가 지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풍수지리에 능통한 신선이었다고 한다. (출처: <https://www.baidu.com>)

若問隨園詩學某, 수원의 시는 누구를 배웠는지 묻는다면,
三唐兩宋有誰應? 삼당 양송에 누가 해당될 수 있겠는가!

원매는 자신이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임을 드러내었다. 자신에 대한 겸양적 표현보다는 스스로 존재적 가치를 부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매는 자신을 관찰하면서도 전통적인 은자상, 군자상, 인재상, 관리상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전형적인 것에서 탈피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는데 「人老莫作詩」(권25)에 보면 시가창작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鶯老莫調舌, 人老莫作詩.	피꼬리는 늙으면 혀를 놀리지 말고, 사람은 늙으면 시를 짓지 말라.
往往精神衰, 重復多繁詞.	자주 정신이 쇠약하면, 시어가 겹치고 많아진다.
香山與放翁, 此病均不免.	백거이와 육유도, 이 병을 모두 면치 못했다.
奚況于吾曹, 行行當自勉.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할 때마다 스스로 힘써야 하네.
其奈心感觸, 不覺口唧啞.	어찌하랴! 마음으로 느끼면, 저도 모르게 입으로 중얼거림을.
譬如一年春, 便有一年花.	일 년 동안 봄이면, 곧 일 년 내내 꽃이 있는 듯.
我意欲矯之, 言情不言景.	내가 그것을 고치려,情有 말할 뿐 경치는 말하지 않았네.
景是衆人同, 情乃一人領.	경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으나, 감정은 한 사람에게 달렸으니.

늙도록 시를 써온 시인들은 개인적인 습관이나 표현의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차라리 시를 쓰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하지만 제 13-16구에서 情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情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같을 수 없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진부하고 관습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性情에 의지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처럼 원매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주동적 글쓰기를 모범으로 보였다. 이는 고인에 대한 영웅주의에서 개인에 대한 주관주의를 보편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 감정, 서정을 풀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는데 주로 『수원시화』에 실려 있다. 다음의 문장은 수재 하사옹의 작품인데 낙제생의 심정을 담은 것이다.

“사람이 일을 도모한지 오래됐음에도 이루지 못하면 마음이 오히려 열어지게 된다. 하사옹 수재의 「감회」에 ‘몸이 쓰일 때가 없는 것은 아니나 가난하여 한가롭기만 하고, 일이 성사되지 않으니 생각도 밋밋해지네.’라고 하였는데 진심으로 깨달은 뒤의 말이다. 그의 다른 작품으로...가 있는데 모두 시인의 뜻에 부끄럽지 않다. 그가 죽은 뒤 내가 소식을 듣자마자 재빨리 사람을 보내 그의 원고를 찾았는데 300여 편이었다. 출판하여 세상에 전하고 원판은 수원에 보관하였다.”¹⁸⁾

과거응시생이 느낀 실패의 낙담에 대해 원매는 ‘眞悟後語’이라 하여 그 진심을 높이 평가하였다. 사실 낙제생의 작품이 세상의 주목을 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매는 지극히 개인적 감정, 사적인 체험이 전하는 진정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전통적 유형, 양식화된 주제와 전범들이 요구되었던 상황에서 원매는 상대적으로 나약한 소외계층의 작가들까지도 『隨園詩話』에 소집하여 개별적, 독자적인 표현의 의의를 확인시키고자 하였다.

원매는 청대를 살아가는 인간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 감성이 그대로 표현되기를 갈망하였다. 이러한 순수목적지향적인 것을 실현하기 위해 시품과 인품의 동일시, 귀고천금 경향, 경전의 절대화, 고인 추종과 모방, 학식의 반영 등 문단에 만연했던 문제점들과 맞서야 했다. 이를 위해 원매는 작자의 성별, 신분에 구분을 두지 않고 詩言志 의미의 확대, 천성, 욕망, 애정, 실제 삶의 문제 반영 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강남의 사교공간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표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존엄적 가치를 피력하도록 독려시켰을 것이다.

18) “人謀事久而不得，則意思轉淡。何士顯秀才「感悔」云‘身非無用貧偏暇，事到難圖念轉平。’眞悟後語也。其他如，…皆不愧風人之旨。歿後，余聞信，飛遣人到其家，搜取其稿，得三百余首。爲付梓行世，板藏隨園。”(『수원시화』 권1-37, 17쪽)

2) 생활소재를 통한 정서적 친밀감 형성

원매는 사교공간에서 직간접으로 만난 사람들과 다양한 작품들을 주고받으며 돈독한 관계를 맺는 계기로 삼았다. 문집의 교정, 서문, 전기문, 묘지문, 제문, 시 등을 청탁받는 일도 많았지만 원매가 나서서 재주 있는 이들을 인재로 추천하거나 뛰어난 작품과 시인을 발굴하여 문집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성별, 연령, 신분 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된 사람들은 원매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화운의 대상으로 삼곤 하였다.¹⁹⁾

원매는 학술, 정치, 경전과 관련된 것 외에 개인생활과 주변 소재까지 포괄적으로 다뤘다. 자신의 외모변화, 질병, 일상행동, 가족, 안경, 거울, 골동품, 음식, 책, 집 안팎의 생활도구 등을 담백하면서도 섬세하게 담아내었는데 여기에서 얻게 되는 평범한 경험들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정서를 전하며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다. 다음의 작품은 목욕을 마친 후에 느낀 감회를 담은 것이다.

『浴』(권5)

浴罷憑欄立,	목욕 끝나고 난간에 기대서니,
高雲掩夕陽.	높은 구름이 석양을 가렸네.
不知何處雨,	어디서 비가 오려는가?
微覺此間涼.	서늘한 기운이 조금 느껴지네.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나오니 바깥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진 것이다. 게다가 시간상 저녁 무렵이다 보니 더욱 그러하였다. 잠깐의 기온차를 느끼며 담담히 풀 어낸 이 시는 사실 더 이상의 수식이나 비유를 필요치 않는 있는 그대로의 기분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소소한 소재는 소박하다 못해 어찌면 밋밋한 느낌마저 들지만 흔한 생활이기에 누구나 그 진솔함을 공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처럼 매일같이 대하는 생활이나 그 주변 사물은 원매가 한 남자, 자식, 아버

19) 『續同人集』의 和韻類에서 원매가 이가 아파서 쓴 시에 화운한 작품(『和存齋主人病齒』)이나 여름날 더위를 잊고자 한 것에 화운한 작품(『奉和簡齋先生『消夏八咏』原韻』)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지, 늙어가는 노인, 시인, 도시인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선택되고 묘사되었다. 그 중에 매일 덮고 자는 이불에 대한 시가 있다.

『衾』(권19)

裁縫合歡被,	잘 꿰매진 입과 덮는 이불,
宛轉可憐宵.	이리저리 뒹구는 사랑스런 밤.
與汝眞無負,	네게는 진짜 책임이 없다만,
多年不早朝.	여러 해 일찍 일어나질 못했네.

잘 만들어진 합환 이불 덕에 수년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니 아침을 맞는 것도 남보다 더디다고 고백하였다. 20자 밖에 되지 않으나 오랜 기간 변함없는 두 사람의 사랑이 깊이 전해지는 시로 남녀 간의 애정을 여과 없이 대담하게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생활과 밀착된 소재에는 이렇듯 남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사적인 내용들도 있기 마련인데 원매는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충실히 전하고자 하였다. 자신이 좋아하고 아끼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심경을 전하기 마련인데 다음 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帚』(권19)

驅塵君子意,	먼지를 몰아내는 건 군자의 뜻이요,
愛好主人情.	좋아하는 것을 아끼는 건 주인의 정이네.
掃到落花雪,	비질을 하다 눈 같은 낙화에 이르자,
呼童下手輕.	동복을 불러 살살 쓸라하네.

마당에서 비질을 하고 있는 동복을 쳐다보고 있자니 낙화를 쓸어버릴 참이었다. 그 찰나에 동복을 불러 움직이던 손을 가벼이 놀리라 하였다. 비질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나 주인에게 낙화는 여전히 더없이 소중한 것이기에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정을 전해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반면 애착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연연하게 되는 것도 있었다. 그중 원매는 돈을 언급하며 「詠錢六首」(권13), 「再詠錢」(권23), 「錢」(권25) 등을 지었다.

「錢」(권25)

百物皆可愛,	백가지 물건이 모두 아꼈만하나,
唯錢最寡趣.	오직 돈만이 가장 풍취가 적다네.
生時招不來,	살아선 불러도 오지 않고,
死時帶不去.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한다네.

먹고사는 문제에 보통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가난한 선비라면 은자의 삶을 동경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던 시대에 원매는 윤택한 삶을 추구하려는 현실적인 선택을 긍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세상살이에서 가장 풍취가 적은 것이 돈이라 하며 벌기는 힘들고 넉넉해졌다한들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는 허망한 것이라 푸념하였다. 원매가 강령현령을 그만둔 후 1752년에 다시 陝西로 출사하려 했던 것도 생계 때문이었다. 어머니, 누이, 처자식 등을 책임져야 했던 가장으로서 생계의 문제를 등한시 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임이후 전업작가로 전향하였던 원매에게 시를 짓는 것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넉넉한 생활에 편안히 지낼 만도 한데 여전히 청탁받은 시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였다. 다음의 시는 한평생 같이한 붓을 대하여 노시인의 피로감과 한계를 토로한 것이다.

「筆不老」(권35)

賦詩如開花, 開多花必少.	작시는 개화와 같아, 많이 피어도 꽃은 필시 적은 법이네.
況我八旬人, 神思久枯槁.	하물며 나는 팔순이라, 생각이 오랫동안 메말랐네.
可奈索詩人, 終朝猶剔鬢.	어찌 시를 찾는 이들은, 종일 치근거리는가.
明知未死蠶, 抽絲終不了.	누에가 죽지 않고는, 실 뽑기를 그만두지 못함을 잘 안다네.
勉強與支吾, 自慙眞草草.	억지로 웅대하고는, 참으로 다급히 지은 것을 부끄러워했네.
何圖良朋來, 公然齊道好.	어찌 피하랴! 좋은 벗이 와서, 거리낌 없이 모두 좋다고 말하길.
吾斯之未信, 姑且存其稿.	난 시를 자신할 수 없어, 잠시 원고를 그냥 두었네.
或者五體盡頽唐, 只有一枝筆老.	아마도 오체는 모두 쇠약해진 것 같은데, 단지 한 자루 붓만 늙지 않았구나.

팔순의 노시인은 시상이 고갈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아직도 시를 청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아 그만 둘 수가 없지만 좋은 시를 쓸 자신이 없어진 시인은 결국 붓을 내려놓았다. 원매에게 붓은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으며 시인으로서의 명예와 성공을 상징하였다. 그러나 황금기를 누렸던 그 때의 시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 느껴졌다. 원매는 무능해진 자신과 긴 세월 속에서도 변치 않는 붓을 대조하며 씩씩한 심경을 고백하였다. 노쇠함은 창작뿐 아니라 생활도 불편하게 만들었다. 다음 시는 약 50대 중반에 왼팔의 통증을 호소한 것이다.

『左臂痛』(권22)

兩臂如雙槳,	두 팔은 두 상앗대와 같은데,
無端弱一枝.	계속 한 쪽이 약해졌네.
癖從左氏得,	고질병이 『좌전』에서 생겨,
書與右軍宜.	글씨는 王羲之에 마땅하였네.
嬖妾雖堪擁,	애첩은 껴안을 수 있겠으나,
霜螫難自持.	가을 게는 잡지 못하겠네.
平生偏袒處,	평생 편애하게 되는 것을,
想被汝先知.	너에 의해 먼저 알고 싶어 했구나.

杜預에게 좌전벽이 있었던 일을 인용하여 아픈 왼팔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비유하였다. 애첩과 게를 대조시켜 왼팔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였는데 자신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작은 물건을 잡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으나 마음이 가는 일이라면 통증도 감내할 수 있으니 왼팔이 느끼는 통증 유무에 따라 좋고 싫음을 구별할 수 있겠다며 자신의 아픔을 유머 있게 표현하였다. 그런가하면 기대하지도 않던 일로 행복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름 아닌 안경 때문이었다.

『余五十歲用眼境, 今八十矣, 偶爾去之, 轉覺清朗, 作別眼鏡詩』(권36)

是誰替我換雙睛,	누가 내게 두 눈동자를 바꿔주었나,
纔隸捐除眼忽清.	안경을 벗었는데 눈이 돌연 맑아졌네.
與汝竟成垂老別,	너와 함께하다 결국 늙어서 이별하게 되었는데,
叨光已領卅年情.	빛을 탐해 벌써 삼십년간 정을 받았네.
水因春暮冰方解,	강물은 봄이 저물며 얼음이 한창 녹으니,
月到更深魄倍明.	달빛이 더 깊은 데까지 이르러 녀이 배로 밝아졌네.

從此鼻端兼耳畔, 이로부터 코끝이 귓가를 겸했으나,
永無牽掛累餘生, 당기고 거는 일로 남은 생애 누를 끼칠 일은 영원히
없겠구나.

원매는 50세부터 안경을 썼는데 80세가 되자 돌연 근시가 사라졌다. 그래서 안경을 쓰지 않고도 얼음이 녹고 달빛이 깊은 물속까지 비추는 것처럼 시야가 환해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코와 귀에 걸쳤던 안경을 벗어버리니 마음까지 홀가분해졌음을 나타내었다. 오랜 시간 붙어 지내 정이 깊이 들었지만 이런 이별은 달가울 수밖에 없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자신의 생활과 밀착된 것에 대한 표현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또한 섬세하고 참신하며 진지하고 진실하였다. 이렇듯 평범하고 익숙한 소재들은 가식적이지 않은 면모를 나타내는데 적합하여 다른 누군가의 공감을 얻고 친근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실용지식과 이야기 제공

사교 공간에서 세련된 매너, 우아한 품격과 박식한 면모는 물질적 풍요만큼이나 중요한 요인이었다.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며 담론의 우위를 장악할 필요성을 느끼는 이들은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은 물론 여가를 즐길 만한 내용까지 공급받고자 하였다. 그중 원매의 과거시험 답안지였던 『원태사고』는 지역을 초월하여 수험생의 필독서였는데 정작 원매 본인은 문장에 끼치는 팔고문의 부작용을 지적하였다. 원매는 작시법에 공을 들였으며 방대한 독서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섭렵하고 재미난 이야기의 수집을 즐겼는데 이것은 교양과 정보 습득, 고급 문인문화 추구, 취미와 여가생활 등을 추구하려는 사람들과 공유되었다.

(1) 작시법

원매는 자신의 창작 경험에 근거하여 시란 무엇이며 시는 어떻게 쓰는가란 질문에 답하고자 노력하였다. 시는 지적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영역이었다. 또한 관직 등용과도 매우 밀접하여 이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았다.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서부터 교양, 취미로 접근하는 이들에게 원매가 만나는 이들의 시를 대하는 목적도 다양하였지만 그들의 실력 또한 일정치 않았다. 이 때문에 원매는 접근성이 용이한 창작원리를 제기하였다. 그것이 바로 개인 '성정'의 강조이다. 또한 작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매우 개방적일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원매는 자연스럽게 학식보다는 천부적 재능이나 영감을 앞세웠던 것이다. 다음 작품에서 원매는 시를 쓰려면 '신령한 무소불의 점(靈犀一點)'과 같이 뿔의 처음과 끝을 단 한 번에 관통하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주변의 평범한 것들이 시인의 발상, 영감을 통해 절묘한 시어로 변화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

「遺興二十四首」其七(권33)

但肯尋詩便有詩,	시구를 찾으려고만 하면 곧 시구가 있는데,
靈犀一點是吾師.	신령한 무소불의 한 점이 나의 스승이로다.
夕陽芳草尋常物,	석양과 향기로운 풀은 보통의 사물이나,
解用都爲絕妙詞.	이해하고 쓰면 모두 절묘한 시어가 된다네.

영감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시자가 끊임없이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말하였다. 이러한 작시법은 원매가 자신의 창작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를 실전한 작품으로 다음의 「偶見」(권5)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柳絮風吹上樹枝,	버들솜 바람결에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고,
桃花風送落清池.	복숭아꽃 바람에 날려 맑은 연못가에 떨어지네.
升沈好像春風意,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 마치 봄바람 뜻인가,
及問春風風不知.	봄바람에게 물어보나 바람도 모른다하네.

시아에 봄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두 가지 사물이 포착되었다. 하나는 버들솜이고 하나는 복숭아꽃이다. 똑같이 바람을 따라 움직이지만 버들솜은 나뭇가지 위로, 복숭아꽃은 연못가로 떨어졌다. 이 제각각 나타난 객관적인 상황을 살피다 원

때는 봄바람의 의도가 있었는가를 스스로 질문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봄바람에게 듣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 지었다. 봄바람을 의인화하여 친밀하고 생동적인 느낌을 살리는 기지를 발휘하였던 것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영감, 발상을 작품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였다. 원매는 당시 시화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상황²⁰⁾ 적절히 이용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시학주장과 작시법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반영한 작품과 그에 대한 비평을 덧붙였는데 당시 시를 짓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²¹⁾

원매는 잘못된 작시태도를 교정하기 위해 고급에 걸쳐 유명인의 명성만 쫓는 편중된 학습과 모방, 時文의 우선 학습, 시체별 학습²²⁾ 및 주의해야할 소재, 압운, 용어 설명, 해석 오류 지적 등에 관해 언급하였다. 다음의 문장은 시문을 우선 시하는 경향과 송원대 시가부터 학습하는 현상을 비판한 것이다.

“근래 선비들은 먼저 時文을 연구하여 서적들을 통달한 후에야 비로소 시 창작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대개 송대와 원대부터 배우기 시작하니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중도에 출가하는 격이다.”²³⁾

뿐만 아니라 잘못된 소재 선택도 지적하였는데 다음 문장은 상중에 부친을 애도하는 내용이 시제로 적합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모 태수가 『哭父』시를 보여주었다. 내가 바로잡아 말하길 ‘곡부는 시제가 아니다. …고인은 상중 삼년 동안은 시를 짓지 않았다. 어찌하여 그런

20) “내가 항주에 있을 때 항주 사람들이 내가 『수원시화』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투어 시를 가지고 와서 시구를 따다써주길 부탁한 것이 자그마치 백수였다. (余在杭州, 杭人知作『詩話』, 爭以詩來, 求摘句者, 無慮百首.)” (『수원시화』 권6-45, 178쪽)

21) “신안 왕고정태수가 『수원시화』를 보고 깨달은 바가 생겨 돌연 이전의 작품을 고쳤다. (新安王太守顧亭先生, 看『隨園詩話』有得, 頓改從前之作.)” (『수원시화보유』 권6-36, 701쪽)

22) 고시 보다 오율을 먼저 배워 고풍과 칠률로 이어지도록 하라고 하였다. 고시를 지을 때 칠고를 너무 가볍지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초학자는 고시를 먼저 배워야 하고 고풍은 이백, 두보, 한유, 소식을 근체는 中晚唐과 宋元대의 유명시인을 배우라 하였다. (『수원시화』 권2-8, 34쪽, 권14-48, 465-466쪽, 권7-98, 237쪽)

23) “然近今士人, 先攻時文, 通籍後, 始學爲詩, 大概從宋元入手, 俗所稱半路上出家是也.” (『수원시화』 권3-27, 75-76쪽)

가? 시는 운이 있는 글인데 슬픔에 몸이 쇠해진 때에 어찌 붓을 들고 운을 쓸 겨를이 있겠는가?”²⁴⁾

또한 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구애받지 말라 하였다.

“『三餘編』에 ‘시인이 사실을 사용해야 할 때 너무 구애받지 말라’고 하였다. 백거이의 「장한가」에 ‘아미산 아래 다니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는데 당 현종이 측 지방을 갈 때 아미산을 가지 않았다.”²⁵⁾

원때는 시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과 자주 토론을 벌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다음은 시를 ‘말’에 비유하여 그 의미를 논한 것이다.

“시란 말과 같다. 발음이 분명치 않은데 온갖 말을 끌어다 뒤섞으면 많을수록 더 물리는 법이다. 발음이 분명하더라도 말에 맛이 있어야만 들었을 때 좋아져 비로소 절묘해지는 것이다.”²⁶⁾

원때는 사람들이 늘상 하는 말을 가지고 시를 정의하였다.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꼈던 시를 좀 더 쉽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것이다. 시는 말처럼 정확한 의미의 전달이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깊은 맛을 품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창작의 주체가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도 논하였다.

“나는 항상 시인은 갓난아기와 같은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 왔다. ...근인 진조남의 「제배면미인도」에 ‘미인이 옥난간을 등지고 기대어, 근심어린 꽃 같은 얼굴을 한번 보기가 어렵구나. 몇 번이나 불러도 돌아보지 않으니, 어리석게도 그림을 흔들어서 보려 하네.’하니 그 오묘함이 모두 아이 같은 말에 있다.”²⁷⁾

24) “有某太史以「哭父」詩見示. 余規之曰, “哭父, 非詩題也. ...古人在喪服中, 三年不作詩. 何也? 詩乃有韻之文, 在哀毀時, 何暇揮毫拈韻?” (『수원시화』 권5-18, 135-136쪽)

25) “『三餘編』言, ‘詩家使事, 不可太泥.’ 白傳「長恨歌」, ‘蛾眉山下少人行’ 明皇幸蜀, 不過峨嵋.” (『수원시화』 권1-22, 10쪽)

26) “詩如言也, 口齒不清, 拉雜萬言, 愈多愈厭. 口齒清矣, 又須言之有味, 聽之可愛, 方妙.” (『수원시화』 권3-34, 79쪽)

27) “余嘗謂, 詩人者, 不失其赤子之心者也. ...近人陳楚南「題背面美人圖」云‘美人背倚玉欄干, 惆悵

원매는 위의 문장에서 창작자는 갓난아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의미를 예시를 통해 이해시켰다. 즉 갓난아기나 할 법한 생각을 시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란 무엇이고 시인은 어떠한가라는 막연한 질문은 이러한 쉽고 간단한 비유나 예시를 놓고 함께 감상과 비평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수원시화』 외에 「속시품」 32수에도 언급되어 있다. 내용은 크게 학습과 창작의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창작 과정마다 작시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세분화하였다.²⁸⁾ 「續詩品序」에 나타나있듯이 작시자가 ‘苦心’하게 되는 것에 대해 밝혀²⁹⁾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인데 청대에 이미 ‘學詩’에 유용한 측면 있다고 평가되었다.³⁰⁾ 내용상 『수원시화』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산문과 달리 시로써 작시를 배우는 묘미가 있었다. 다음의 「26.勇改」를 보도록 하자.

千招不來，倉猝忽至。	천 번을 불러도 오지 않다가, 급히 홀연히 왔도다.
十年矜寵，一朝捐棄。	십년간 아끼던 것을, 하루아침에 버렸네.
人貴知足，惟學不然。	사람은 만족함을 아는 걸 귀하게 여기나, 배움만은 그렇지 않네.
人功不竭，天巧不傳。	사람의 공을 다하지 않으면, 천연의 공교로움은 전해지지 않네.
知一重非，進一重境。	하나의 중대한 잘못을 알면, 하나의 중요한 경계로 나아가네.
亦有生金，一鑄而定。	천연의 황금이라도, 주조해야 모양이 정해지는 법이네.

花容一見難。幾度喚他他不轉，癡心欲掉畫圖看。妙在皆孩子語也。”(『수원시화』 권3-17, 71쪽)

28) 필자는 「續詩品三十二首」를 창작과정에 따라 ① 창작이전 단계: 창작의 대원칙 제시와 사유 확장, ② 창작진입 단계: 제목 결정과 작품 구상, ③ 창작진행 초기단계: 작품의 형식적 요소 운용, ④ 창작진행 중기단계: 작품의 지향점 숙지, ⑤ 창작진행 말기단계: 세밀하고 결단력 있는 검토, ⑥ 퇴고 단계: 수정 등으로 나누었다. (줄고, 앞의 논문, 서울대중문과박사논문, 2015, 173-181쪽)

29) “司空圖의 『二十四詩品』을 좋아하지만 단지 오묘한 경계만 앞세우고 고심하는 것을 쓰지 않은 것이 아쉬워 몇 수를 지어 그것을 잊고자 하였다. (余愛司空表聖詩品，而惜其祇標妙境，未寫苦心，爲若干首續之)” (『소창산방시집』 권20, 『원매전집1』, 415쪽)

30) “근래 원매가 「續詩品三十二首」를 지었는데 진실로 시의 법칙을 배우는 것이니 읽지 않을 수가 없다. (近袁簡齋作「續詩品三十二首」，乃眞學詩之準繩，不可不讀)” (梁章鉅, 『退庵隨筆』 (編纂委員會 編, 『續修四庫全書』, 上海古籍出版社, 1995, 1197쪽)

제1-4구는 더 좋은 시를 위해 생각을 거듭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원하던 바를 얻게 되었음을 말하였다. 제5-8구는 부단히 노력하여 '天巧'에 이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다. 제9-12구는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만 더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어 자기만의 시 세계를 만들 수 있음을 말하였다. 좋은 작품은 독창성을 이뤄야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함을 말한 것이다.

『수원시화』가 산문과 운문을 혼용하여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적 방법으로 작시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풀어썼다면, 「속시품」은 4언 12구의 운문 형식에 32개의 개별 제목을 붙여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쓴 것이 특징이다. 원매는 이처럼 여러 형식을 활용하여 좋은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2) 백과사전식 지식

원매는 시가 창작에도 역사가처럼 '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³¹⁾ 스스로 지식, 식견을 갖추고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당시 고증학의 융성은 경전에 대한 재해석의 유행을 만들고 다독과 출판을 부추겨 사람들의 관심사 또한 다양한 지식으로 모아졌다. 원매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수원수필』에 기록하였다. 서문에서 따르면 경전보다 더러는 많이 아는 것, 패관잡기보다 사소하거나, 기이한 것 및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³²⁾

『수원수필』은 일종의 고증적 성격이 반영된 백과사전식 類書로 전체 내용은 20개이고 다시 소주제로 나뉘 총1224조항으로 이뤄졌다. 경전, 역사, 금석학, 역법, 지리, 관직제도, 과거제도, 문헌 해석, 관혼상제 관련 예법, 점복에 이르기까지 잡

31) “史書を 지으려면 세 가지가 뛰어나야 하니 才, 學, 識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내가 말하길 시 또한 이러하여 識이 가장 우선이니 識이 없으면 才와 學이 모두 오용된다. (作史三長, 才學識缺一不可, 余謂詩亦如之, 而識最爲先, 非識則才學俱誤用矣)” (『수원시화』 권3-47, 84쪽)

32) “소창산에 들어온 지 삼십년이 되었는데 하루라도 책을 떠나 보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습성이 또 건망증이 있어 수시로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것은 아는 게 경사보다 크고 어떤 것은 아는 게 패관보다 사소한 것이며 어떤 것은 기이한 이야기를 탐하여 적고 어떤 것은 나의 견해를 미약하게 풀어놓았다. (入山三十年, 無一日去書不觀, 性又健忘, 不得不隨時摘錄. 或識大于經史, 或識小于稗官, 或貪述異聞, 或微抒己見)” (『隨園隨筆自序』, 『수원수필』, 『원매전집5』, 1쪽)

다한 내용이 들어있다. 여러 서적의 내용을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라 대조와 분석을 거쳐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諸經類(14조): 경전에 실린 문장 대조, 주석 오류, 새로운 주석, 작자, 명칭 등에 관해서 논하였다. 주로 『논어』, 『시경』, 『左氏傳』, 『穀梁傳』, 『公羊傳』, 『爾雅』를 중심으로 다뤘는데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 2) 諸史類(81조): 역사서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기』부터 약 35개의 역사서를 다뤘다. 체제, 위작 여부, 내용 비교, 逸事 확인, 오류, 의심스러운 것, 史家의 특징, 정사 보충 등에 관한 내용이다.
- 3) 金石類(47조): 東漢 비문의 기원, 用韻, 묘지명과 신도비의 특징 비교, 비문의 보조적 기능, 碑題와 碑文의 특징, 여인이 비문을 쓴 희귀한 사례 등을 적었다.
- 4) 天時地志類(37조): 天時에 관한 것은 18조인데 齊, 秦, 魯나라 역법, 望日, 三伏, 단오, 수계, 등고, 한식 날짜에 대한 얘기이다. 지리는 19조인데 지리학의 어려움을 말하고 四至, 揚州, 赤壁, 曲江, 馬嵬, 雁塔, 吳興 등에 관한 내용이다.
- 5) 官職類(150조): 역대 관직명에 대한 분석, 고금 비교, 관직별 특징, 공주, 부마, 노비, 관서, 휴가, 봉록, 인장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 6) 科第類(61조): 진사의 명칭 유래, 과거시험 등록, 시험장 규칙, 축하연, 시험시기, 時文八股, 시험감독관, 溫卷, 진사과, 明經科, 童子科 등 과거시험 관련 내용이다.
- 7) 各解類(80조): 단어나 구절에 대한 문헌상의 해석을 모아 비교하였다.
- 8) 典禮類(123조): 관혼상제, 연회, 改嫁 관련 예법에 대해 논한 것이다.
- 9) 政條類(50조): 詔書 종류, 살아있는 자에게 諡號를 내린 사례, 긴급문서의 특징, 역대 官制와 관련된 용어를 고증한 것이다.
- 10) 稱謂類(48조): 避諱 및 각종 호칭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 11) 辨訛類(187조): 잘못 전해진 사실이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해 고증하였다.
- 12) 存疑類(35조): 사람들에게 의심을 샀던 내용에 대해 고증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시삼백수』의 작자, 공자 부인, 굴원의 죽음 등이 있다.
- 13) 原始類(59조): 전족, 기녀, 생일 축하, 장성, 종이, 붓, 殿試, 문자 등의 기원에 대해 고증하였다.
- 14) 不可亦可類(30조):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관한 설명의

로 예를 들면 혼례에 음악을 쓰지 않으나 써도 괜찮다, 여자는 상례를 주관하지 않으나 주관해도 괜찮다, 동성은 혼인을 하지 않으나 혼인해도 괜찮다 등의 내용이다.

15) 應知不知類(21조): 예법이나 용어의 사용상 반드시 알아야했는데 모르고 행했던 사례를 문헌에서 찾아 지적하였다.

16) 不符類(29조): 문헌상 내용이 서로 다르게 나와 있거나 野史와 政事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논하였다.

17) 詩文著述類(54조): 문체종류, 自註의 불필요, 문체의 기원, 운율, 누락 보충, 고인의 모방, 위작, 고금 비교, 옛날 虛字의 사용, 해외에 있는 중국책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18) 古姓名類(22조): 옛날 사람의 이름, 자 등에 관해 고증한 것이다.

19) 雜記類(84조): 항목으로 분류하기에 마땅치 않은 것들을 모아놓았다. 매우 잡다한 것들을 수록하였는데 예를 들면 舜에게는 형이 있었다, 척독, 고법은 너무 엄격하다, 心學의 오류 등이 있다.

20) 術數類(12조): 점, 관상, 묘지, 집터, 길흉 상장의 불일치 등에 관해 말하였다.

원매는 경서, 역사서, 碑文, 각종 문집 등에 대해 탐독하고 고금의 문헌 비교, 유사 서적 비교, 오류 지적, 용어의 문헌적 고증, 진위 문제 등에 관해 논하였는데 아마도 청대 고증학의 단상이 이러할 것이다. 원매의 탐색이 당시 고증학계의 연구 성과와 어떤 동이점이 있는지는 필자의 영역 밖이다. 다만 이러한 자발적인 탐색은 스스로 총체적인 시각을 마련하는 과정이란 면에서 의미를 지녔다. 이러한 논의는 사교공간을 통해 교환되어 지적 활력에 도움을 주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의문을 던지고 객관적 증거를 준비하며 고전텍스트가 요구하였던 경직된 사고의 틀 혹은 단순한 암기나 맹목적 추종으로부터 이탈하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이로써 주자학과 같은 특정 이념에 함몰되는 것을 거부하고 개인적 관심과 취향에 따라 의문을 품고 지적탐색에 참여하려는 주체적 의지를 발동시켜 지식인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재미있는 이야기

다양한 지적 호기심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사교공간에서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원매의 작품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지괴소설 『자불어』, 『수원시화』의 작품관련 일화 및 낯선 지역에 대한 여행담을 들 수 있겠다. 모두 말하기에 의지하여 풍부한 대화를 이끈 후에 기록된 것들이라 볼 수 있다. 『자불어』와 『수원시화』에 수록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원매가 수집한 것이다. 대체로 청대인의 작품이 대다수이며 각 이야기의 앞에는 관련자 이름, 지역, 관직, 성별, 날짜 등을 밝혀 놓아 실제 이야기임을 강조하였다. 이때 『자불어』와 『수원시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제보자와 작시자들은 원매를 중심으로 한 사교적 관계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청대는 『요재지이』 등 지괴류 소설이 크게 유행하였고 원매 역시 그 시류에 맞춰 『子不語』를 엮었다. 대략 1025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원매 스스로 문장과 역사서가 주지 못하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 만든 것이라 밝혔듯이³³⁾ 오락을 목적으로 하였다. 백화가 아닌 고문으로 지어졌고 내용은 여러 유형의 인간에서부터 토지신, 성황신, 저승사자, 귀신 등이 인간계, 비인간계, 사후세계를 오가며 벌이는 파렴치한 행태, 억울한 사연, 관리의 부패, 무모한 신 숭배, 극악한 처형 등 각종 사악하고 부조리한 면면들을 세밀하고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독특한 이야기들은 2000자 전후로 짧막하고 간간히 대화체를 섞어 썼는데 화려한 수식을 배제하고 간결하게 사건의 전말을 서술하는데 치중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이야기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전달하는데 유리하였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찾아낸 이야기의 제보자를 자처하며 이야기의 사실성을 부각시켜 재미를 더할 수 있었다.

『자불어』가 기이하고 자극적이면서도 비판적인 특징이 강하다면 『수원시화』는 개인적이고 감성적이다. 산문과 운문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화가 어떻게 시로 옮겨지는지 그 추이를 보는 묘미가 있는데 다음의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항주인 조균대가 소주에서 첩을 사는데 성이 이씨인 여자가 있는데 모습은 빼어나나 발이 전족을 하지 않았다. 조씨가 ‘이 같은 자태에, 토중인데 아쉽구나’라고 하였다. 토중은 항주의 속어로 발이 크다는 것이다. 중매

33) “문장과 역사 외에 스스로 즐길만한 것이 없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귀를 놀라게 한 일을 두루 모았다. (文史外無以自娛, 乃廣采游心駭耳之事)” (『子不語』序, 『소창산방문집』 권 28, 498쪽)

하는 할멈이 ‘이씨 여자가 시를 쓸 줄 아니 만나 시험해보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씨는 그녀를 놀릴 생각에 곧 「弓鞋」를 제목으로 삼아 짓게 하였다. 여인이 곧 ‘삼촌의 궁혜는 예부터 없었고, 부처님도 두 발을 드러내셨다네.’³⁴⁾ 전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지요? 인간세상의 천한 사내로부터라네.’라고 하니 조씨가 두려워하며 도망갔다.”³⁵⁾

첩을 사려는 남자와 여인의 묘한 신경전을 담은 내용이다. 남자는 여자를 보고 얼굴은 예쁘나 전족이 아니라며 트집을 잡다가 시에 능하다며 만남을 주선하는 매파를 따라 만났지만 「弓鞋」 즉 전족을 제목으로 하여 시를 써보라며 빈정대었다. 여인은 이를 못마땅하게 부처만도 못한 천한 남자들이 전족을 유행시켰다면 망신을 주었다. 첩을 사는 일은 소주에서 늘 빈번하게 있는 일이었다. 한번 사면 물리기가 어려우니 매우 신중을 기해야하는 일이었다. 미모, 작시능력, 전족이 첩은 고르는 기준이었는데 이에 대한 여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여인은 그 억울하고 분한 심정을 시로 전하였다. 사건의 전말은 산문으로 자세히 풀어쓰고 여인의 심경은 운문으로 전하며 입체적인 효과를 주었다. 이렇게 시화에 적구된 작품들은 대개 작자의 이름까지 공개되었는데 배경을 설명하는 일화의 도움을 받아 더 생생히 기억될 수 있었다.

이외에 새로운 지역에 대한 경험담이 있다. 원매는 67세부터 79세까지 장거리 여행을 즐겼는데 절강 天台山, 안휘 黃山, 광둥 端州, 복건 武夷山 등으로³⁶⁾ 짧게는 2개월에서 11개월까지 소요되었다. 실제 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경험 세계를 보여주었는데 다음 시는 건륭 47년(1782) 67세에 浙江 天台山을 유람하던 중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당황하는 내용이다.

34) 부처가 세상을 떠나 열반에 들었는데 멀리 있던 迦葉이 소식을 듣고 늦게 도착하여 슬퍼하니 석가모니가 관에서 두 발을 내보이며 그에게 법을 전수함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35) “杭州趙鈞臺買妾蘇州，有李姓女，貌佳而足欠裹。趙曰‘似此風姿，可惜土重。’土重者，杭州諺語，脚大也。媒婦曰‘李女能詩，可以面試。’趙欲戲之，即以「弓鞋」命題。女郎書云‘三寸弓鞋自古無，觀晉大士赤雙趺。不知裹足從何起？起自人間賤丈夫！’趙悚然而退”(『수원시화』 권 4-37, 111쪽)

36) 건륭 47년(1782): 절강 天台山(4개월), 건륭 48년(1783): 안휘 黃山(2개월), 건륭 49년(1784): 광둥 端州(11개월), 건륭 51년(1786): 복건 武夷山(?), 건륭 57년(1792): 절강 천태산(3개월), 건륭 59년(1794): 절강 천태산(봄).

「過剡溪水急不能」(권28)

...

我來正值春潮起,	내가 오니 마침 봄날 조수 이는 때라,
白浪滔滔打船眉,	물결이 넘실거리며 배꼬리를 치네,
縴斷桅崩行不前,	밧줄이 끊어지고 돛대가 무너져 나가질 못하니,
一落深愁沒溪底,	강바닥으로 침몰할까봐 깊은 수심에 빠져버렸네,
水哉水哉聽我言,	강물아, 강물아, 내말 들어보렴,
人生且住爲佳耳,	인생에 잠시 멈추는 것도 아름답다네,
到海分明會有期,	바다로 가는데 분명 때가 있을 것인데,
問君何苦狂如此?	그대에게 묻노니 어찌 이리도 심히 사나운가!

제1-4구에서는 배를 타고 이동하며 剡溪 주변의 산수에 대해 간략히 묘사하였다. 제9-12구는 조수가 심해져서 밧줄이 끊기고 돛대가 무너져 침몰할 위기에 놓이자 아기를 달래는 듯 어떻게든 파도를 잠재워보려는 애절함을 담았다. 이러한 작품은 실제 경험이 아니고선 표현하기 어려운 생동감과 현장감을 지니고 있다. 이 여행은 1월 27에서 5월 27일까지 4개월 동안 상주, 의흥, 항주, 가흥, 소흥을 지나 천태산에 올랐다가 台州, 溫州, 縉雲(지금의 麗水市)을 거쳐 돌아왔다. 원매는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다급히 작품을 짓기 시작하며 “등불 심지를 돋우고 새 시의 원고를 급히 쓰니, 풍류인들 얼마나 와서 볼까!”³⁷⁾라고 하고 무려 126편의 작품을 남겼다. 이렇듯 여행은 새로운 이야기와 작품을 만들어내는 동력이었으므로 늘 주변인의 관심사가 되었고 사람들은 여행의 실제경험이 어떻게 작품으로 실천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4) 장르 융합을 통한 관계망 확대

원매는 사교 공간에서 관계망을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시, 문, 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융합하여 입체적인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그림과 시, 둘째는 小傳의 일화, 시, 비평, 셋째는 隨園觀燈會의

37) “挑燈急寫新詩稿, 多少風人要索看”(「正月廿七日出門五月廿七日還山」, 『소창산방시집』 권 28, 638쪽)

축제놀이와 창화시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그림과 시를 융합한 것으로는 「隨園雅集圖」, 「十三女弟子湖樓請業圖」, 「對雪圖」가 대표적이다. 「隨園雅集圖」는 건륭 30년(1765)에 원매가 당시 초상 화로 유명했던 화공 吳省曾³⁸⁾에게 부탁하여 그린 것으로 袁枚, 沈德潛, 莊士銓, 慶蘭,³⁹⁾ 陳熙 등 다섯 명의 모습이 담겨 있다.⁴⁰⁾ 심덕잠(1673~1769)은 67세에 진사가 되었으나 건륭제의 총애아래 예부시랑까지 지냈으며 격조설을 주장한 시단의 원로이자 원매와는 진사 동기였다. 장사전(1725~1786)은 한림원편수를 지내다 건륭29년(1764) 40살에 사임하였고 원매, 조익과 함께 江右三大家로 불렸다. 경란은 당시 양강총독 윤계선의 아들로 출사에 뜻을 두지 않고 풍아와 시를 즐겼는데 그의 부친은 원매의 관료시절부터 돈독하게 지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진희는 秀才이며 원매의 제자였다. 이 그림을 토대로 『續同人集·題圖類』에는 「題隨園雅集圖」 14수가 실려 있는데 王鳴盛, 錢維城, 錢陳群, 嵇璜, 佚名, 錢大昕, 蔣和寧, 彭啓豐, 朱筠, 錢維喬, 陳淮, 梁同書, 王文治, 汪恂 등이⁴¹⁾ 지은 것

38) 吳省曾: 자는 身三. 江蘇 無錫 사람이다. 『소창산방문집』 권5에 「吳省曾墓誌銘」이 있다.

39) 慶蘭(1736~1790): 자는 似村, 滿洲 鑲黃旗 사람이며 尹繼善의 여섯째 아들이다. 아버지는雍正제와 건륭제 시대의 명신으로 兩江總督, 文華殿大學士 등을 역임했으며 『尹文端公詩集』이 있다. (출처: <https://www.baidu.com>)

40) 원본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청대 陸鑣이 모사하였던 것을 民國 연간에 羅振常이 『隨園雅集圖題詠』 1권으로 간행한 것이 전해지고 있다. 『隨園雅集圖題詠』에 실린 梁國治의 「隨園雅集圖記」에 따르면 심덕잠은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93세고, 장사전은 낚시를 하고 있고 40세이며 경란은 붓을 쥐고 있는데 28세이며 陳熙는 책을 들고 바위에 기대고 있는데 18세이며 원매는 앉아서 글을 안고 있으며 49세였다고 하였다. 정행은 장사전, 진희, 원매의 나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각각 41세, 17세, 50세로 수정하였다. 鄭幸 著, 『袁枚年譜新編』, 上海世紀出版集團, 2011, 337-338쪽.

41) 양명성(1722~1797): 자 鳳喈, 호 西沚. 內閣學士, 禮部侍郎, 光祿寺卿 역임. 경사 고증학자. 전유성(1720~1772): 자 宗盤, 호 茶山. 刑部侍郎을 지낸 청 중기의 화가임. 전진군(1686~1774): 자 主敬. 順天學政, 刑部侍郎 등을 역임하고 시문에 능함. 해 황(1711~1794): 자 尙左. 南河와 東河河道總督, 工部尙書, 太子太保 역임. 치수에 능함. 전대훈(1728~1804): 자 曉徵, 호 竹汀居士. 編修, 廣東學政 역임. 鍾山, 婁東, 紫陽書院 등의 원장이었고 經史, 金石, 문자, 음운, 天算 등 여러 학문에 정통한 고증학자임. 팽계풍(1701~1784): 자 翰文, 호 芝庭. 형부시랑, 병부상서 역임. 시문, 회화, 서법에 능함. 주 군(1729~1781): 자 美叔, 호 竹君. 安徽學政, 翰林學士 역임. 금석, 그림, 서법에 능함. 전유교(1739~1806): 자 樹參. 화가. 양동서(1723~1815): 자 元穎, 晚號는 山舟 또는 不翁. 編修, 侍講 역임. 서법에 능함.

이다. 이들은 대체로 진사출신의 중앙관료를 지냈던 경험이 있으며 각각 경사, 금문, 시, 서, 화 방면에 정통하였다. 이들이 대외적으로 획득한 정치적 권력과 학문적, 예술적 위상은 「수원아집도」 안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힘을 실어주었다.

원매는 오랜 시간을 두고 「수원아집도」의 제화시를 받았다. 예를 들어 彭啓豐은 「題隨園雅集圖」에서 작품을 쓰게 된 경위를 밝히며 수원을 방문하고 9년이 지난 후에 제화시를 부탁받았는데 심덕잠 선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4명도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 그림과 실체가 일치하지 않음을 아쉬워했다.⁴²⁾ 그러나 그림 속 인물들의 영향력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명성이 높은 이'들에 의해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원매가 주도한 이 인위적인 계기를 통해 '수원'은 문인공동체의 핵심 공간이 되어 과거와 현재의 인물들을 공존시키고 결속시켰던 것이다. 다음 문장에서는 원매가 여성에게도 적극적으로 題詩를 부탁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隨園雅集圖」를 그리고 30년 이후로 당대 명사들이 쓴 글이 가득 해졌다. 다만 여인들의 작품이 적었다. 漪香부인의 재주를 좋아하였는데 蘇州에 산다는 것을 알았다. 편지를 쓰고 찾아가서 글을 부탁하려니 외람됨을 느꼈다. 편지를 보낸 지 5일이 안 되었는데 부인 또한 글을 보내 「采芝小照」에 시를 지어 달라 하였다.⁴³⁾ 천리 밖이나 피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맞으니 이미 기이하였다. 내가 「采芝圖」의 복사본을 만들고 소주에 가

왕문치(1730~1802): 자 禹卿, 호 夢樓. 編修, 侍讀 역임. 서법에 능함.

蔣和寧, 陳淮, 汪恂 미상. (출처: <https://www.baidu.com>)

42) “건륭 26년 봄...주인은 수원에 앉아서 피리를 불고 있었고...나는 오랫동안 배회하다 곧 떠났다. 다음날 주인이 편지로 나를 연회에 초대하였으나 마침 내가 栖霞로 유람을 가려던 차라 시 4장을 남기고 이별로 삼았다. 지금에 이르니 어느새 이미 9년이 되었다. 주인이 사람을 시켜 「수원아집도」로 그 뒤에 시를 써줄 것을 부탁하였다...여러 명공들이 쓴 시를 이어서 살펴보니 대부분 그 그림에서 함께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여겼다...그림에는 다섯 명이 있는데 심덕잠선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분들은 각자 다른 곳에 흩어져 있으니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 해도 그럴 수 없었다. (乾隆二十六年春, ... 主人坐嘯其中 ... 余徘徊久之, 乃去. 明日主人折簡招予飲, 適予將游栖霞, 留詩四章以爲別. 迄今忽忽已九年. 主人乃命使以「隨園雅集圖」, 屬予題其後...繼觀諸名公題詠, 多以不獲與于斯圖爲憾...雖然圖有五人, 而歸愚先生已下世, 其他諸君子各散處一方, 欲重舉故事曾不可得)” (『제수원아집도』, 『속동인집·제도류』, 『원매전집6』, 168쪽)

43) 「題漪香夫人采芝圖」의 自註에 “마침 「수원아집도」로써 부인의 제시를 구하려고 하였는데 부인의 그림이 먼저 이르렀다. (方以「隨園雅集圖」索夫人題, 而夫人之圖先至)”라고 하였다. (『소창산방시집』 권32, 773쪽)

서 부인에게 말하여 알리자 부인도 「隨園雅集圖」의 복사본을 내보여 서로 크게 웃었다.”⁴⁴⁾

원매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작품이 부족한 것을 아쉬워하였다. 漪香은 周月尊(자이고 畢沅⁴⁵⁾)의 첩이었다. 원매는 그녀의 작품을 소장하고 싶어 편지를 보냈는데 마침 서로 생각이 통했는지 그 부인에게서도 제화시를 부탁받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 「采芝圖」와 「隨園雅集圖」의 복사본을 만들어 서로 소장하였음을 말하였다. 漪香부인이 지은 「題簡齋先生雅集圖」는 『續同人集·閨秀類』에 실려 있고 원매의 「題漪香夫人采芝圖」는 漪香부인에게서 받은 편지와 함께 『소창산방시집』에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존 주씨가 삼가 수원선생께 매우 평안하신지 안부를 묻습니다. 제가 선생의 책을 읽은 지 십여 년이 되었습니다. 또 때때로 중승께서 선생의 말씀과 풍채에 대해 말씀하심을 들음에 입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중주에서 이상온의 ‘십년의 오랜 꿈속에서 아름다운 지초를 캐었네’⁴⁶⁾란 구절을 가져와 「채지도」를 지었으나 화공의 실력이 미천하고 제시할 사람을 고르지 못해 진실로 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 이 그림이 비록 큰 작품이 되기에는 부족하나 진실로 이를 빌려 문집에 성씨를 전하면 평생의 한을 비로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 송주의 나이가 세 살이라 근래 이미 꽃을 심었고 아지가 복을 타고 난 운명이라 형제가 되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승과 선생의 우정이 두터우시니 들으시면 반드시 기뻐하실 듯하여 이로써 감히 덧붙여 언급하였습니다.”⁴⁷⁾

44) “余畫「隨園雅集圖」，三十年來，當代名流題者滿矣，惟少閨秀一門。慕漪香夫人之才，知在吳門，修札索題，自覺冒昧。乃寄未五日，而夫人亦書來，命題「采芝小照」。千里外，不謀而合，業已奇矣！余臨「采芝圖」副本，到蘇州，告知夫人，而夫人亦將「雅集圖」臨本見示，彼此大笑。”(『수원시화』 권2-30, 43쪽)

45) 畢沅(1730~1797): 자는 饒衡 또는 秋帆이고, 호는 靈巖山人이며 江蘇 鎮洋 사람이다. 건륭25년(1760)에 진사가 되고 陝西巡撫, 湖廣總督 등을 지냈으며 경사, 소학, 금석, 지리 등에 두루 능통하였다. 저서로 『續資治通鑑』, 『經典辨正』, 『靈岩山人詩文集』 등이 있다. (출처: <https://www.baidu.com>)

46) 제목은 「東還」이다.

47) “月尊周氏端肅問隨園先生萬安，尊讀先生之書，十有餘年矣。又時聞中丞道先生言論豐采，口無虛日。海內老師宿儒，奇才異能之士，至中丞左右者，莫不盛稱先生之才。...前在中州取義山‘十年長夢采華芝’之句作「采芝圖」，畫工既劣，更不能擇手題咏，誠無可觀。今特寄呈，求賜宏

漪香부인은 원매에게 두 가지 사항을 전하였다. 하나는 자신의 「채지도」에 원매의 시를 받고자하였다. 이는 문집을 만들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유명인사였던 원매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두 집안의 아들을 의형제로 맺어 주자는 것이다. 가족적 요인을 더하여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원매가 직접 제화시의 상대를 골라 청탁한 경우가 있는가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원의 벽에 시를 써서 남기는 경우도 많았다.⁴⁸⁾ 그중에는 여성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매가 여성 시회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여제자를 두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이들의 활동 또한 그림과 시로 가시화되었다.

수원 여제자들은 『隨園女弟子詩選』을 출판하고 杭州와 蘇州에서 시회를 열었는데 바로 湖樓詩會와 綉谷園詩會이다. 이들은 1790년과 1792년 2회에 걸쳐 열렸던 항주시회를 기념하기 위해 「十三女弟子湖樓請業圖」를 그렸다. 첫 번째는 孫嘉樂의 장녀 孫雲鳳의 초대로 여시인 13명과 함께 寶石山莊에서 시회를 개최하였고 두 번째는 항주지부 明保의 참석과 함께 여제자 7인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⁴⁹⁾

원매는 시가 창작을 목적으로 한 여성을 동등하게 문인으로 대우하고 이들의 활동을 독립시키는 가교역할을 하였다. 교방에서 이루어졌던 여성들의 개별적 글쓰기가 사교공간을 통해 교류되는 방식으로 양식화되는데 일조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여성들은 개인의 자질을 평가받고 시인으로 공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은 小傳의 일화, 시, 비평을 융합하는 방법으로 대개 『隨園詩話』에 나타나 있다.⁵⁰⁾ 이러한 형식은 辛文房의 『唐才子傳』, 錢謙益의 『列朝詩集小傳』, 王士禎

製. 斯人斯圖雖不足當大方題品, 誠欲藉傳姓氏于集中, 則生平之憾始釋然也. 小兒嵩珠年甫三歲, 近已種花, 以爲遲郎福命宜兄弟所致. 先生與中丞誼重交深, 聞之必喜, 用敢附及.” (『소창산방시집』, 『원매전집1』, 772쪽)

48) “내가 계림에 있을 때 淑蘭 女弟子가 우연히 수원을 지나가다 벽에 그리움의 정을 적어 보이며… (余在桂林, 淑蘭女弟子偶過隨園, 題壁見懷云…)” (『수원시화』 권6-60, 183쪽)

49) 王標 著, 앞의 책, 166-168쪽.

50)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채시의 의미를 소략하였으나 필자는 원매가 ‘話’ 부분에 남다른 주의를 기울이며 小傳의 일화, 채시, 비평을 적절히 사용하여 다양한 ‘성정’ 표현의 경로를 실증

의 『漁洋山人感舊集小傳』 등에서도 쓰였으나 『隨園詩話』는 역대 유명인이 아닌 淸代 인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화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함께 담겨 있고 여기에 시와 비평이 간략하게 덧붙여 있는데 서로 감상과 토론을 나누며 자기 사유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함께 불러간 친구 만광태는 오언과 칠언 고시에 뛰어났다. 정진방이 그것을 읽고 오체를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근체는 송인을 배워 어렵고 불분명한 병이 있었다. 陳穀은 전문적으로 근체시에 공력을 들이고 명대 칠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정진방이 만광태의 시를 칭찬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서로 크게 부딪쳤다. 내가 跋文을 지어 두 사람의 서운함을 풀어주고 또 만광태 근체 중에 뛰어난 것을 골라 진고어를 깨우쳐주었다. 그의 「題開元寺」에 ‘옛 나무에 등지가 빼곡하고, 먼 곳에 집은 객이 오는 게 드므네.’ ... 진의가 이내 수궁하였다.”⁵¹⁾

위 내용은 한 시인의 작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을 나타내었다. 원매는 만광태의 고체시를 높이 평가하였는데 근체시에 대해서는 ‘회색’하다는 평을 내렸다. 이에 반해 정진방은 만광태의 시를 읽고 감탄하였고 진고어는 그러한 태도를 비난하였다. 이러한 의견 충돌 속에서 원매는 만광태의 근체시 가운데 불만한 것을 선별하여 진고어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원매는 극단적이지도 이분법적이지도 않은 객관적 비평 태도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았던 원매의 비평은 창작능력을 대외적으로 검증받길 원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수원아집도」와 시를 결합한 양식이 특정인에게 국한되어 사용되었다면 두 번째 방법은 원매가 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람과 작품을 선별하여 공유하였던 방법이었다. 지역, 출신, 계층, 성별을 초월한 작가들이 자신들의

하고자했다고 강조하였다. 줄고, 「江南도시와 袁枚 전기류 창작의 상관성」, 『中國學報』 제 76집, 2016, 227-230쪽.

51) “同徵友萬頃坡光泰, 精于五七古. 程魚門讀之, 五體投地. 近體學宋人, 有晦澁之病. 陳古漁專工近體, 宗七子, 故聞魚門贊萬詩, 大相抵牾. 余爲作跋, 釋兩家之憾, 且摘柘坡近體之佳者, 以曉古漁. 其「題開元寺」云, ‘古樹鳥巢密, 疏寮客到稀.’...陳乃折服.” (『수원시화』 권1-53, 23-24쪽)

갖가지 사연을 담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청대의 작품이었다. 역대 고인의 작품에 대한 열독을 넘어서 맹목적인 추종과 모방이 만연하였던 시대에 원매는 요즘 사람들의 진솔한 표현에 주목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작품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이들이 자신의 사연들을 어떻게 풀어내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며 감상과 비평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더 나아가 출판의 발달과 함께 청조 본토를 넘어 조선에까지 확대됨으로써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대 사람들의 정서와 사유체계를 공유할 수 있었다.

셋째, 원매는 자신의 隨園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 담론을 생산하고 축제를 기획하였다. 또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창화시를 지어 이를 기념하며 감회를 남겼다. 『續同人集·宴集類』에는 입춘, 청명, 夏孟, 上元, 비가 온 뒤, 중추, 입동 전 및 매화, 모란, 작약, 부용, 杏花, 해당 등의 꽃이 피거나 낚시를 할 때면 수원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연회를 즐기며 지은 작품들이 실려 있다.

또 燈會를 열기도 하였는데 『續同人集·放燈類』에는 정진방, 秀才 何士顯, 고증학자 錢大昕 등 27명이 수원의 관등회를 기념하여 지은 28편의 시가 있다. 또 『續同人集·宴集類』의 「隨園與鄉試諸公小集三首」는 남경으로 향시를 보러왔다가 수원에 초대된 응시생들이 지은 것으로 원매는 이들을 위해 수원의 사방에 등을 밝히고 그 수고를 위로하였다. 주로 봄과 가을에 燈會를 열었는데 당시 남경의 중요한 불거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隨園張燈詞八首」 其一(권15)에 燈會의 모습이 잘 나타내었다.

隨園一夜闌燈光,	수원에서 밤새 등불을 다투니,
天上星河地上忙,	천상의 은하수가 지상에서 바쁘네,
深訝梅花改顏色,	매화가 낮빛을 바꿔 너무 의아해했더니,
萬枝清雪也紅粧,	온 가지의 맑은 눈꽃도 붉게 단장을 했구나.

매화가 피는 시절에 밤새 등불을 켜고 연회를 즐기자니 매화꽃과 봉오리가 모두 붉게 물들어 화려한 장관을 이루고 있음을 묘사하였다. 원매는 隨園을 사교공간으로 활용하고 '燈會'라는 개방적인 축제문화를 만든다. 원매가 직접 초대한 이들, 원매에게 배움을 구하려고 온 과거응시생이나 신진지식인 및 익명의 구경꾼들은

이 축제를 기점으로 수원을 중심으로 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었다.

3. 결론

원매는 사임이후 강남도시의 사교공간을 오가며 문필활동을 벌였는데 참여자들과 성별, 계급, 연령상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맺으며 대화, 토론, 비평을 통해 교양, 지식, 취향, 사적 이야기, 문단과 시대에 대한 비판을 나눴다. 이러한 내용은 뜻이 명확하여 이해가 쉬었다. 또한 실용적이고 유익하였으며 친근하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 견해와 자기내면의 표현이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 또한 집단적 만남은 문집이나 그림 등의 양식으로 통해 대외적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었다. 원매는 자신의 수원을 개방하여 사교공간으로 활용하였고 이곳을 찾는 지인, 제자, 수험생 및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교육, 토론, 축제, 한담 등을 함께 하였다. 원매의 문학주장과 작품들은 모두 이 소통과 협의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고인에 대한 계승보다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들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교공간은 동시대인의 참여와 함께 시대를 고민하며 연대할 수 있는 곳으로 성장하길 기대할 수 있었다.

원매의 작품에는 이러한 사교적 관계망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 특징들이 있었다. 첫째, 개인적 글쓰기를 강조하였다. 원매는 『小倉山房詩文集』과 『隨園詩話』에서 역대 유명인에 대한 모방을 반대하고 개인의 '성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시를 창작하라고 강조하였다. 원매 역시 이러한 주장을 작품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모은 시를 『隨園詩話』에 수록할 때에도 이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원매는 평범한 사람들의 보편적 감정을 존중하고 그것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표출되길 염원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貴古賤今의 경향을 거부한 것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중시한 것이다. 이로써 사교공간에서 사람들의 시가 창작의 참여율을 높이고 개인 서정의 표출을 독려했다.

둘째, 생활소재를 통한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였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러

한 소재들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익과 목적을 떠나 인간 삶의 진정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과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셋째, 사교공간에서는 정치적 담론부터 학술, 예술, 상식, 교양 등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교류되었다. 원매는 진사 출신이자 전직 관료로 일하면서 실무 경험을 갖춰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지식을 전해줄 수 있었다. 『隨園詩話』와 『續詩品』에서 作詩 태도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원매가 자신의 창작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풀어내는 시가창작법은 사교공간에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외에 백과사전식 지식에 관한 얘기는 고급문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논의와 비판을 거쳐 기초교양을 형성하려는 지식인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

넷째, 장르 융합을 통해 관계망을 확대시킨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과 시를 접목시킨 제화시다. 당시 문인이나 화가들은 그림, 서예, 시의 융합을 통해 최고의 문화상품을 만들어내었고 이것을 사교공간에서 감상하고 공유하며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는데 이용하였다. 다음은 소전의 일화, 시, 비평을 융합시킨 양식이다. 『隨園詩話』에는 小傳과 采詩라는 일화와 시의 장르 융합을 통해 다양한 인물에 대해 소개하고 그들의 시적 감수성과 작품 세계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외에 축제놀이와 창화시를 접목시킨 것으로 '燈會'가 있다. 이 개방적인 축제문화는 수원의 상징적 기호로 작용하였고 사교공간의 참여자들은 원매를 중심으로 한 문인공동체에 속해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원매의 주요 무대였던 18세기는 명말청초의 왕조변혁기를 거치면서 경제치용 학파를 중심으로 주자학에 대한 회의와 사회전반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다. 한편 강남도시에서는 경제적 부흥에 따른 중국식 르네상스를 맞고 있었다. 이는 서양의 자극을 받아 변화한 19세기와 달리 淸朝의 자발적 변화라는 면에서 시대사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강남도시의 사교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원매 역시 그런 변화의 단초가 되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參考文獻〉

1. 원전 및 주석서

- 王英志 選注, 『袁枚詩選』,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9.
- 袁枚 著, 吳言生·高磊 解評, 『袁枚集』, 山西: 三晉出版社, 2008.
- 袁枚 著, 王英志 主編, 『袁枚全集』, 上海: 江蘇古籍出版社, 1993.
- 袁枚 著, 李夢生 選注, 『袁枚散文選集』,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4.
- 袁枚 著, 李靈年·李澤平 譯註, 『袁枚詩文選譯』, 成都: 巴蜀書局, 1990.
- 袁枚 著, 周本淳 標校, 『小倉山房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 袁枚 著, 興華 譯, 『隨園詩話』, 北京: 昆侖出版社, 2002.
- 張健 著, 『袁枚詩新論』, 臺北: 文津出版社, 2012.
- 周舸岷 選注, 『袁枚詩選』,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89.
- 袁枚 著, 백광준 譯, 『袁枚 산문집』, 서울: 지식출판사, 2009.
- 원매 저, 최일의 역, 『袁枚詩選』, 서울: 문이재, 2004.
- 원매 저 최일의·王英志 譯, 『袁枚의 강남 산수 유람시』, 서울: 지식출판사, 2013.

2. 국외 단행본

- 簡有儀 著, 『袁枚研究』, 臺北: 臺北文史哲, 1988.
- 楊鴻烈 著, 『袁枚評傳』, 上海: 上海商務印書館, 1927.
- 嚴明·陳清雲 편저, 『袁枚研究學術檔案』,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3.
- 嚴迪昌 著, 『清詩史』,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2.
- 吳宏一 著, 『清代詩學初探』, 臺北: 臺灣學生書局, 1986.
- 吳兆路 著, 『性靈派研究』, 蘭州: 甘肅教育出版社, 2001.
- 王英志 著, 『文彩風流袁枚傳』, 北京: 東方出版社, 2012.
- 王英志 著, 『性靈派研究』, 瀋陽: 遼寧大學出版社, 1998.
- 王英志 著, 『袁枚與隨園詩話』,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 王英志 著, 『袁枚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02.
- 王標 著, 『省市知識分子的社會形態』, 上海: 上海三聯書店, 2008.
- 劉衍文·劉永翔 合注, 『袁枚續詩品詳注』, 上海: 上海書店, 1993.
- 鄭幸 著, 『袁枚年譜新編』, 上海: 上海世紀出版集團, 2011.
- 陳書錄 著, 『儒商及文化與文學』, 北京: 中華書局, 2007.

3. 국내 단행본

- 리하르트 반 뢰덴 저, 최윤영 역, 『개인의 발견』,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5.
- 벤저민 엘먼 저, 양휘웅 역,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서울: 예문서원, 2008.
- 시어도어 드 배리 저, 표정훈 역, 『중국의 '자유' 전통』, 서울: 이산, 1998.
- 알랭 로랑 저, 김용민 역, 『개인주의의 역사』, 서울: 한길사, 2001.
- 원매 저, 박정숙 역, 『子不語』, 서울: 지식올만드는지식, 2015.
- 원매 저, 신계숙 역, 『隨園食單』, 파주: 교문사, 2015.
- 윌리엄 T. 로 저, 기세찬 역, 『중국 최후의 제국』, 서울: 너머북스, 2014.
- 이광주, 『교양의 탄생』, 파주: 한길사, 2009.
- 이광주, 『담론의 탄생』, 파주: 한길사, 2015.
- 임병철 저, 『르네상스기 이탈리아인들의 자아와 타자를 찾아서』, 서울: 푸른역사, 2012.
- 張仲禮 저, 김한식 외 역, 『중국의 紳士』, 서울: 신성원, 1993.
- 저우스펀 저, 서은숙 역, 『揚州八怪』, 서울: 창해, 2006.
- 조영현 저, 『대운하와 중국상인』, 서울: 민음사, 2011.
- 홍성민 저, 『취향의 정치학』, 서울: 현암사, 2012.
- 서정복, 『살롱문화』, 파주: 살림, 2003.

4. 국외 논문

- 賈婷婷, 「袁枚『子不語』鬼小說研究」, 首都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9.
- 孔燕妮, 「袁枚詩歌理論與實踐研究」, 復旦大學 박사학위논문, 2011.
- 孫紅梅, 「論袁枚的山水詩」, 中央民族大學 석사학위논문, 2005.
- 王鏡容, 「傳播, 聲譽, 性別 - 以袁枚『隨園詩話』爲中心的文化研究」, 暨南國際大學 석사논문, 民國91.
- 王正兵, 「含笑看泰華 請各立一峰 - 袁枚『子不語』研究」, 揚州大學 박사학위논문, 2009.
- 劉興仁, 「袁枚古體詩研究」, 佛光大學 석사학위논문, 民國99.
- 李春桃, 『二十四詩品接受史』, 復旦大學 박사학위논문, 2005.
- 張麗華, 「論袁枚的性靈散文」, 內蒙古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3.
- 張慧珍, 「袁枚小品文研究」, 政治大學 석사학위논문, 民國78.
- 周新道, 「袁枚文論初探」, 南京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2.
- 陳齋亮, 「袁枚古文理論及其古文創作」, 深圳大學 석사학위논문, 2008.
- 車振華, 「論袁枚散文」, 山東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4.

5. 국내 논문

- 신병철, 「袁枚의『子不語』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8.
 신재환, 「『隨園詩話』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0.
 이원규, 「袁枚 詩論 研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5.
 이재숙, 「清代 袁枚의『隨園詩話』選譯」, 강릉대 석사학위논문, 2007.
 최일의, 「袁枚 詩學理論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백광준, 「문장에 대한 袁枚의 사유와 그 함의」, 『중어중문학』 제28집, 2001.
 백광준, 「袁枚와 요리책 - 袁枚의 삶 그리고『隨園食單』의 집필」, 『중국문학』 제56집, 2008.
 조병한, 「18세기 江蘇文壇의 文化觀과 政治的 입장」, 『역사와 경계』 제19호, 1990.
 최일의, 「袁枚『續詩品』의 창작원리론 고찰」, 『中國文學』 제20호, 1992.
 홍혜진, 「18세기 江南 도시의 문예장과 袁枚의 글쓰기」, 서울대중문과 박사논문, 2015.
 홍혜진, 「詩學 전문서『隨園詩話』의 기능」, 『中國文學』 제83호, 2015.
 홍혜진, 「江南도시와 袁枚 전기류 창작의 상관성」, 『中國學報』 제76집, 2016.
 홍혜진, 「원매의 시가창작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제52집, 2018.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Writing
 for the Social Networking at JiangNan City
 - Focusing on Yuanmei's Literature

Hong, Hye-Jin

Yuanmei was a poet who worked in the social space of Jiangnan city, for example a garden, a courtesanhouse, an academy 書院, a poetry club and his Suiyuan. The people who took part in the social space formed horizontal exchanged ideas through discussion, criticism, and conversation. They pursued pursuing culture, knowledge, literary culture, and self-development. He paid attention to the contemporaries and explored the demands of the times. He realized that the value of the personal living in the current should be

established.

So he emphasized the writing with the reflection of personal temperament, induced the expression of one's inner desires and feelings, and expanded the subject which was closely connected with ordinary life. He also provided practical knowledge such as versification and encyclopedic knowledge and interesting stories for the demand for knowledge, culture and entertainment. Further, in order to expand the network of social spaces, he actively used three combining forms, first 『Suiyuanyajitu』 and poet, second biography'anecdote, poet and criticism, third exhibit of lanterns and poet.

As a result Yuanmei created the symbol of Suiyuan, he was able to be the leader. Participants in the social space belonged to a literary community in which Yuanmei was central, and wrote a poem that reflected the poetic theory that he claimed. Using flexible thinking and subjective judgment, they could use it as an opportunity to discover and grow themselves.

Key words: Yuanmei, Social space, temperament, individual, Suiyuan, 『Suiyuanshihua』, 『SuiyuanYajitu』

이 논문은 2019년 4월 25일에 접수되어 2019년 5월 12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5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